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시세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대상 12:3)

다음 주일, **제 5차 성찬식 및 맥추감사주일**

일시: 7월 2일(다음 주일), 1~3부 예배시

장소: 본당

* 성결한 삶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삼 담임목사 동정

몽골 현지교회 탐방 6월 26일(월)~29일(목)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회(호국 보훈의 달)

일시: 6월 28일(수) 10:00~10:40 장소: 베다니홀

전도훈련 (기본교육)

일시: 7월 1일(토) 10:00~12:00

대상: 동역교회 전도지원 참여자 및 희망자

장소: 베다니홀

2023 순 전도행사

와 보라!

초청자 작성기간: 6월 25일(주) ~ 7월 9일(주)

순 '새가족의 날'	2023.8.20(주) ~ 9.3(주)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음악회 새가족 초청	2023.9.8(금)
새가족 초청 교구모임	2023.9.10(주)

차량안내부 봉사자 모집

차량안내부에서 충현의 예배와 주차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상: 모든 성도

봉사시간: 매주일 1~2시간도 가능

지원방법: 차량안내부(본당지하 1층 출입구 쪽)에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기타문의: 김명성 부장(010-9910-4567) / 정재복 차장(010-3712-0165)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부서	일정	장소
영아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1층 영아부실
유아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2층 유아부실
유치부	7월 15일(토), 16일(주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2층 유치부실
유년부	7월 21일(금)~23일(주일) 오후 2시	제1교육관 3층 유년부실
초등부	7월 21일(금)~23일(주일) 오후 2시	제1교육관 3층 초등부실
중등부	7월 23일(주일)~25일(화) 오전 10시 30분	충현기도원
고등부	7월 27일(목)~29일(토) 오전 9시	충현기도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1-9)



지혜의 책, 잠언은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를 주로 다룹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주위를 부드럽게 하며,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바를 보는 안목을 통하여 주변과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한 지혜에는 더 큰 힘이 있기에,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혜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잠언 16장은 사람이 해야 할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명쾌하게 구별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1절a)”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마음의 경영’입니다. 마음의 경영이란,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속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보다 훨씬 구체적인 단계이자, 반쯤 구워진 생각(Half-baked Idea)보다 더 완성된 생각’이 마음의 경영이라 정의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9절a)” 자기의 길에 대한 계획도 사람이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길’은 행동과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의미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33절a)” 마지막으로 ‘제비뽑기’는 계획의 결정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해야 할 영역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영역도 말씀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절b)” 말의 응답이란,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셔서 이루십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9절b)”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계획하고 방향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지만, 삶의 자리에서 시행되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33절b)” ‘작정’이란 법관의 최종적이고 공의로운 판결을 뜻하는데,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사람에게 있지만, 이를 통한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지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인생의 경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지만, 인생의 경영을 최종적으로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방법이 보다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3절)” 사람의 준비와 행함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맡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큰 돌을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소리가 나게 굴러서 그 앞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모두 맡겨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에도, 맡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의심과 머뭇거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는 의심하거나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의심과 머뭇거림이 사라지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기도 하며, 게으름이 굳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에 치명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맡기면 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듯한 두려움이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바와 즐거워하는 바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경영을 하고, 길의 계획을 세우며, 제비를 뽑는 결정을 스스로 주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이를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일이 뒤틀린다면 그 때가 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맡기는 것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

느니라 (2절)”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찰하시면 실격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은 경영하되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길을 계획하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결정은 내가 하더라도 작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7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원수와 의 관계까지도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 의지

절대주권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로봇이나 기계처럼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여 살 수 있는 부분적인 위임장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과 공동 경영자로 여겨주심’ 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 13:6)”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에 사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담대한 믿음의 선언은 시편 118편에 근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 118:5-7)” 지극한 고통 중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넓은 곳, 즉 깨달음이 있고, 삶의 넓은 지경이 열리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응답 중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여기까지 이르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시 118:18)”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단한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 시인은 감사의 찬양을 연속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심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드시고 그의 백성을 도우시며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해야 하는 책무가 만나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경영과 길의 계획,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결정을 지혜롭게 잘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더 의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자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임무를 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삶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Commit Your Work To The Lord
And Your Plans Will Be Established

(Proverbs 16:1-9)

Rev. Kyu Sam Han

The book of wisdom, Proverbs, mainl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people and things. Words and behaviors of wise men make surroundings composed, fit well with, and make harmony with them through the insight of seeing what others cannot see. Particularly, since the wisdom related to God had the greater power, Proverbs refers to all the parts related to God as wisdom and explains men can acquire wisdom through their relationship with God. Proverb 16, which shows the Bible's perspective of life, distinguishes clearly the realm of God and that of men. "Mortals make elaborate plans,"(v 1a). One of what men have to do is the plan of the heart. The plan of the heart is to think of what one tries to do to a concrete degree in one's heart. A certain exegete defines the plan of the heart as not only the stage as much more concrete than brainstorming but also the thought more completed than the half-baked idea. "A man's heart plans his way"(v 9a). To plan his ways is also the realm of what man has to do. Way means a detailed plan of activities regarding behaviors and directions. "The lot is cast into the lap,"(v 33a). Lastly, casting the lot is a figurative expression of determining a plan. The Bible also talks of the realm of God in contrast to the realm of men. "but from the Lord comes the proper answer of the tongue,"(v 1b). 'The proper answer of the tongue' impli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thought in one's heart is embodied. In the process that the thought in a man's heart is embodied, God removes the unnecessary part and fulfills it. "but the Lord establishes their steps." God allowed men to plan and establish their directions, but God should lead the steps taken in the place of life in order for them to go on the right way. "but its every decision is from the Lord,"(v 33b). 'Decision' means the final and righteous verdict of the judge, and the decision on which way to go is up to men but the work through this is up to God. The correct discernment of what men have to do and what God has to do is an important appearance of wisdom.

Plans of life entrusted to God

Humans live deciding according to their own plans and thoughts in the scope God permitted, but the wiser way is entrusting the plans of their lives to God who ultimately presides over the plans of life. Therefore, we should live hard, but be open in order that we change our plans according to God's will.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he will establish your plans,"(v 3). When God works and leads what humans prepared and practiced, it will be firmly established. The Hebrew word for 'commit' means 'to roll a big stone with making a sound until it reaches and is set before God'. Despite that we have to commit whatever we do to God to accomplish it, the first reason that we don't do so is because of doubt and hesitation. Even though we believe in the presence of God, committing everything to God is likely to cause the doubtful heart to rise without our knowledge, and we are also apt to hesitate whether we have to entrust whatever we do to the Lord. I pray for the blessing that doubt and hesitation disappear from you will be present to you. The second is spiritual laziness. Laziness makes your heart hardened, and chronic laziness is fatal because Satan is apt to work. We just can solve spiritual laziness, and if we are in a state where we do not entrust it to God due to spiritual laziness, we can entrust it to God immediately right now, so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is work of blessing will be present to us. Lastly, there are cases in which we do not entrust all of our plans to God because of the fear, or discomfort that we are not likely to live on our own liberties when we entrust every plan to God. But God did not prohibit what we want and what we are pleased with. Rather, He ordered us to make the plans of the heart, plan the way, and take charge of determining to cast a lot for ourselves. Since it is not easy for us to do this work properly in life, we should become believers who know how to entrust what belongs to the domain of God to God. If lots of things are distorted in life, it's the time when we should entrust them to God more thoroughly. When we have

obediently entrusted the whole of our lives to God, we can see how God changes and leads us within it. "All the ways of a man are pure in his own eyes, but the LORD weighs the spirit,"(v 2). Even if a man thinks he himself is pure, there can appear what can be disqualified when God inspects the spirit.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to recognize that though the plans of the heart belong to humans, the proper answer is from God, though humans plan their ways, God sets their steps, and though I cast a lot, the decision is up to God. "When a man's ways please the LORD, he makes even his enemies to be at peace with him,"(v 7). When our lives please God, we can make even the relationship with enemies peaceful. It is because a life that pleases God is a life that is entrusted to God.

God's sovereignty and our free will

When ruling this world, God who has the absolute sovereignty and dominion over all things did not create humans the creature as robots or machines following the order of God. Rather, He gave humans free will and permitted the partial commission of the right to live planning their lives for themselves. The Bible expresses this as 'God regards the undeserved as His co-worker', or 'the one who helps us'. "So that we may boldly say, The Lord is my helper, and I will not fear what man shall do unto me,"(Heb 13:6). The proclamation of bold faith that the Lord is my helper and I will not fear humans is based on Psalm 118. "When hard pressed, I cried to the Lord; he brought me into a spacious place. The Lord is with me;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ere mortals do to me? The Lord is with me; he is my helper. I look in triumph on my enemies,"(Ps 118:5-7). The poet sings God leads him to hear the cry to God in a desperate suffering, leads him into a spacious place, where there is awakening and a wide border of life is opening. This can be said as a response of responses.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e depth of our faith reach here.

"The Lord has chastened me severely, but he has not given me over to death,"(Ps 118:18). The poet offers deep thanks and praises to God who raised a soul from a hardship severe enough to death. The profession that God is my helper does not mean that whatever situation I am in, God helps me unconditionally. The Bible says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e is made, and I offer perfect obedience before God, God holds up his two arms, helps, and keeps his people. In the place where the sovereignty of God and what humans should do encounter, the work takes place. In order that we should perform the plans of the heart and the plan of our course and the determination of casting a lot wisely, we not only need a firm relationship with God but also depend on God more and more. Let's believe in God's sovereign rule and that God is the owner of the whole world and also of my life. Let's also believe in the fact that God gave us a duty to live the course that God is pleased with.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whatever situation we are in, you and I continue to live spreading seeds in that place.

영역·이울의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 카자흐스탄 1팀, 6월 8일(목)~ 6월 15일(목) -

충현교회에서 처음으로 계획된 카자흐스탄 협력선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이루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으며 앞으로 이루실 계획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슬림들의 감시와 핍박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상황이지만 이 땅의 젊은이들이 33℃의 더운 날씨에도 찬양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창문을 다 닫고 선풍기 몇 대에 더위를 이기며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방법과 지식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놀라우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 직장, 사회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실 속에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아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그 어떤 삶의 기쁨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신 현지 선교사님 부부와 많은 시간을 가지며 교제함을 통해 위로하며, 가족의 사랑과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나누고 깨닫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디서든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하신 선교였습니다.

12교구 이지형 집사

이번 선교 활동은 행복, 감사,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7박 8일 간의 일정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건강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 팀원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며 선교사님과 베라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교훈련에 집중했던 지난 3개월여 동안 많은 변수와 상황들로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서로간의 위로와 섬김을 통해 회복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슬람권의 지역에서 20여년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외로운 선교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부부를 바라보게 하였고 세족식을 통해 주님이 보내신 선물로서 기쁨을 드리고 위로하며 새 힘을 얻게 하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라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찬양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였고 계획과는 다른 발걸음을 통해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정 심방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눈물로 함께 했고 우리의 연약한 경험들을 고백함으로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베라교회가 종교시설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예배드리기를, 예배 처소가 잘 매입되기를,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 아시아를 향해 나가는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10교구 이재관 집사

저는 3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화상회의를 통하여 소통하며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매주일 팀 훈련과 찬양연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첫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됨을 우리는 체험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감사의 눈물로 예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선교여행의 서막을 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가정들을 심방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충현교회 70주년을 기념하는 지난 모든 행사들의 마침표는 선교를 통한 성령으로 하나됨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택침함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할 일은 이 은혜로 받은 의로움을 값없이 전하는 일 뿐인 것만 같습니다. 그곳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합심하고 협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팀이 아니라 선교의 시작을 알리고 돌아온 팀입니다. 이제 중앙아시아의 중심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메마르고 어두운 곳에서 낙심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힘차게 기도하고 끝까지 위로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입니다.

12교구 전성호 집사



새가족 환영회 후기

충현교회 등록하고 3~5월 기본과정을 수료한 새가족들을 축복하는 새가족환영회가 6월 18일(주일) 오후 2시, 베다니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약 45명의 새가족들이 참여하여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등록하는 새가족 성도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간증문]

저는 필리핀에서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작년 5월말에 갑자기 큰 아들 목에 혹이 생기더니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 2주는 필리핀 병원을 다녔는데, 그 사이에도 발진이 생기고 구토와 마비증상도 보여 급하게 한국으로 6월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내렸고, 12월 중순까지 항암치료를 6차까지 받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지만 가족들의 기도와 친구들의 응원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 올케 언니의 권유로 충현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으며, '충현교회 중보기도팀'에 기도제목으로 올려주셔서 함께 기도해주셨습니다. 새가족위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한규삼 담임목사님께서 히스기야를 회복해주신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하나님,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도 치유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현재 아들은 CT상으로 암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아무런 부작용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시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할 정도였는데, 빠른 치료와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에게는 미래는 희망차고 설레기보다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억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믿음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전교인이 하고 있는 성경통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침에 눈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설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신 한규삼 담임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준 중보기도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따뜻하게 섬겨준 새가족위원회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시영 성도



2023년도 하반기 단기선교 사역 추가모집 신청 및 권역별 기도회 모임 안내

◎단기선교 추가모집

선교위원회는 2023년 코로나 이후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고자 “**언약을 붙들고 세상 열방으로**”라는 표어 아래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23년도 단기선교 사역 신청서를 지난 4월 16일 선교주일까지 접수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선교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셔서 많은 팀들이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기선교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반기 추가 단기선교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2023년 하반기 단기선교 계획안(일정/국가/지역/사역내용)을 주간충현과 선교위원회 게시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오니 성도님들은 복음전파사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선교 참가신청 접수일 : 2023년 7월 2일(주일)까지 (양식 : 선교위원회 / 교구 간사실 / 교회학교에 비치)
- 제출처 : 선교위원회 선교1·2부 앞 (선교관 4층 선교위원회)

선교 1부 : 일본, 미얀마, 몰도바, 캄보디아(4개국 8개팀 / 59명) (문의: 정재영 안수집사 010-9750-5366)

일 정	국 가	지역 및 사역자	사역내용	참여인원	대 상
11월	일본	교토 / 김세진 선교사	교토 CFC 교회와 함께 하는 요양원, 양로원 등 순회 찬양선교 사역 및 현지교회 홍보, 문화사역	8명	찬양사역자 청년/장년
9월 말, 11월	미얀마	만달레이 / 파우크 목사	피지타곤 지역에 세운 뵤엘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주변 축호전도 및 가정심방, 어린이 사역, IT 사역	8명	청년/장년
		양곤 / 강영미 선교사	양곤 흘라잉따야 지역 모아응찌교회 주변 축호 전도 및 심방사역, 어린이 사역(그리기, 만들기, 외우기)	8명	청년/장년
10월	몰도바	키쉬나우 / 네꼴라에우까/ 스테판 목사	키쉬나우 Grace Covenant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 세미나 (키쉬나우 시외)를 지원하는 사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프로그램(영어+전도)를 및 IT사역, 키쉬나우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사역	6명	청년/장년
10월, 11월, 12월	캄보디아	프놈펜 / 깐니까 목사	프놈펜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리 교회 인근 주변 전도 및 프놈펜 외곽 캄뵤 톰 지역의 개척 지역을 중심으로 노방 및 축호전도, 어린이 사역	8명	장년
		푸르사트 / 쏭찌어 목사, 킴 트음 목사	푸르사트 지역에 위치한 뉴호프 교회, 롤립교회, 헤브론 교회를 중심으로 협력선교 및 축호전도, 어린이 사역 및 외곽 뵤띠봉 지역에 소재한 학교전도 사역	8명	청년/장년
		몬돌끼리 / 김영화 선교사	몬돌끼리 지역에 있는 여호수아 아카데미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을 주변 전도와 현지교회 지원 사역	8명	청년/장년
8월 중		프놈펜 / 푸르사트	프놈펜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리 교회 푸르사트 지역에 위치한 뉴호프 교회, 롤립교회, 헤브론 교회	5명	장로

선교 2부 :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3개국 6개팀 / 49명) (문의: 임성돈 안수집사 010-4874-4116)

일 정	국 가	지역 및 사역자	사역내용	참여인원	대 상
7.24(월)~8.1(화)	스리랑카	와우니아 김영운, 강기엽 선교사	시온교회, 호산나교회, 언약교회를 중심으로 노방/축호전도, 어린이사역, IT사역, 청년들을 위한 사역	10명	청년
7.24(월)~8.1(화)		와우니아 김영운, 강기엽 선교사	시온교회, 호산나교회, 언약교회를 중심으로 노방/축호전도, 어린이사역, IT사역, 청년들을 위한 사역	5명	장로
11월		와우니아 김영운, 강기엽 선교사	제자교회를 중심으로 노방/축호전도 사역, 어린이사역, 총동원사역	10명	장년
9.26(화)~10.3(화)	네팔	포카라 / 단목사	포카라 글로리어스교회 지원 사역 및 성도 가정 심방, 어린이 사역, IT 사역	8명	청년/장년
11월		카투만두	교회 지원 사역 및 성도 가정 심방, 어린이 사역	8명	장년
11.10(금)~17(금)	베트남	하노이 다니엘 선교사	하노이 농아인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현지 어린이 사역 및 성도 심방사역	8명	에바다부

◎권역별(각 국가별) 기도회 모임 안내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권역별(각 국가별) 기도모임을 재개합니다. 이 기도모임을 통해 선교지를 더욱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하며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대상자 :

- 각 국가와 사역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 단기선교 참여 희망자 및 신청자
- 단기선교 완료자

○ 국가별 일시 및 장소

- 선교1부
 - 몰도바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8시 (온라인 Zoom)
 - 몽골·태국·캄보디아·미얀마·일본 : 매월 셋째주 주일 오후 2시 50분 (추후 예정)
 - 선교2부
 - 베트남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 Zoom)
 - 스리랑카 :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 9시 (엠마오희)
 - 인도네시아·네팔 : 매월 셋째주 주일 오후 2시 50분 (추후 예정)
 - 선교3부
 - A국 :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 9시 (엠마오희)
 - 카자흐스탄 :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8시 (온라인 Zoom)
 - 통일선교 : 매월 셋째주 오후 4시 40분 (베다니홀)
- ※ 장소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선교관 4층)로 문의 바랍니다.

더꿈데이



예꿈양육부의 첫번째 '더꿈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꿈데이는 충현 교회를 통해 더 많은 꿈을 꾸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바라며 준비한 예꿈양육부의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몇 주에 걸친 준비 과정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염색이 잘 되지 않으면 어쩌나, 많은 인원으로 소홀함이 생기면 어쩌나 더 많이 기도하며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당일 한낮의 태양이 너무 뜨겁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무색하게 뜨거운 태양은 구름으로 가리시고, 때에 맞는 바람을 불어 염색천을 빠르게 건조시키시는 은혜가 감사하였습니다. 처음 고무줄

을 묶어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힘들다고 하던 아이의 표정은 시간이 지나며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변하였고 천과 가방을 염색물에 담그고 빨랫줄에 널기 위해 분주히 다니는 아이들 발걸음은 기쁨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준비와 뒷정리등 봉사자들의 많은 수고가 따랐지만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모두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강림 주일을 지나며 준비한 천연 염색체험을 통해 예쁘게 물들어가는 천처럼, 충현의 아이들의 마음도 예쁜 성령의 색으로 물들어갈 또한 바라봅니다♡



2023년 총현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충현교회에 등록교인으로 고등부, 청년부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는 자.
충현교회에 등록교인으로 교구 또는 봉사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충현장학금 수혜 누적횟수 (대학생 장학금) 4회 이상자는 선발에서 제외 됩니다.

2. 일정

7월 16일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마감 (14:30 까지)
7월 20일 ~ 28일 : 자체심사 (고등부, 청년부)
8월 4일 : 면접 (교구, 봉사부서 추천 신청자)
8월 16일 : 선발자 공고 - 홈페이지 (주간총회는 8월 20일자 공고)
8월 20일 : 장학증서 수여식 (찬양예배 시)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교회소식을 참고하여 다운 받아 사용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사무국 회계과 [☎ 552-8200, 구내 : 406, 407번]

소망부 교사 모집

신 청: 소망부 교사실에서 작성 기 한: 모집 시까지 문 의: 010-2466-6603

2023년 제 2회 CMTC 훈련(2차)

일 시: 6월 25일(오늘) 16:30~18:30 **장 소:** 갈릴리홀

예배 담당(6/28~7/2)

날 짜	예 배	설교	사회	기 도
6/28	수요 I	견고한 기춧돌 (사 28:14-22) 이기영 목사	문진호	이길구
6/30	금요일집회	우리가 드리는 하늘의 예배 (히 13:15-16) 문진호 목사	이기영	
7/2 제5차 성찬식 맥추감사주일	주일 I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사 55:6-11) 한규삼 담임목사	임대영	남중호
	주일 II		이성환	윤순규
	주일 III		박영환	김상열
	주일찬양	만들어 낸 것 (왕상 12:25-33) 권순동 목사	전영재	김원조

교구별 주력새벽기도(6/26~7/2)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26(월)	김주한/최종역	롬 15:1-13	전교인
27(화)	전영재/홍금성	롬 15:14-21	전교인
28(수)	김승래/홍탁성	롬 15:22-33	전교인
29(목)	김유석/김용호	롬 16:1-16	전교인
30(금)	권혁근/김 욱	롬 16:17-27	전교인
1 (토)	박요셉/박요셉	딤후 1:1-9	전교인
2 (주)	정석훈/정석훈	딤후 1:10-16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아,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전 11:00(본당)	
금요일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지행) ②호차 9:40 감실역 3번출구, 10:20 아담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집회 강사: 윤준식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7교구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비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테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마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년 1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년 2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리짓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년 3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루터기독교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디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12:40~13:40(아볼로)	디도태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니부	1910~20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별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082	이수하	기본과정	안정숙
2	1083	조소현	기본과정	안정숙
3	1084	이소을	유치부	안정숙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080	김한일	기본과정	이희우
2	1086	이휘경	기본과정	
3	1088	조일형	기본과정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081	이종휘	청년2부	
2	1087	이여원	청년2부	오지은

별
세

1. 신영순 권사(김명화 집사의 모친·이의용 성도의 장모, 6교구) / 15일 별세, 17일 장례
2. 최은경 성도(조문수 성도의 아내·조유석 성도의 모친, 7교구) / 16일 별세, 19일 장례
3. 현광범 성도(유정지 집사의 남편, 9교구) / 18일 별세, 20일 장례
4. 이금선 성도(홍순길 장로의 모친·백인숙 권사의 시모, 2교구) / 22일 별세, 24일 장례